

2021년 7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4:00~04:30 (재방송 매주 월 00:25~00:55)

o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창숙	7/4	[뉴스오늘] '골든위크' 맞은 野대선판...'룰의 전쟁' 조기 점화하나 [뉴스워치] 정세균-이광재 "7월 5일까지 단일화"...윤석열 내일 출사표 [뉴스리뷰] 쿠팡 노동자 잇따른 폭로..."안전은 뒷전이였다"	
이재원	7/11	[일요와이드] 민주당, 대선경선 '국민면접'...1등 이낙연·2등 최문순 [뉴스1번지] 이낙연, 대선 출마선언...윤석열, 탈원전 비판 행보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수술실 CCTV법' 통과 가능할까?	
안호림	7/18	[뉴스포커스] '코로나 독립' 무색해진 美...병상 부족에 집단 감염까지 [뉴스 특별] 전 세계 지배종으로 자리 잡는 델타 변이...재확산 현실화 [뉴스센터12] 금품수수 의혹...경찰, 검찰 대상 첫 압수수색	
김홍태	7/25	[뉴스특보] 경찰, '마포 오피스텔 살인' 구속영장 신청 [뉴스특보] 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한 유동수, 2심서 무기징역 선고 [뉴스특보]'욱'하는 사회, 보복범죄 잇따라...대처는 미흡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21. 01. 26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2021년 7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1 7/4(일)	김창숙	6월 28일 <뉴스메이커>에서는 무면허 10대 청소년들이 도난 차량을 몰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단독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야심한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승용차 한 대를 뒤쫓아가 경찰차로 승용차 진로를 막고 멈춰 세우는 영상을 보여주며 급박했던 사건 현장 모습을 전했습니다. 탑승자는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 다섯 명으로, 기자는 이들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도난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탄 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훔친 것으로, 경찰차가 차를 가로막자 운전자 A군은 차문을 열고 뛰쳐나와 골목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는데, 탑승자 중 10대 여성 세 명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렌터카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린 후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A군 일행이 탄 차량에 탑승했다며 사건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검거 당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군을 포함해 이들 10대 다섯 명을 무면허 운전과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도주한 10대 남성 한 명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강력범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청소년 범죄에 경우 모방범죄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보도의 경우 앞의 보도처럼 범행내용이나 범죄 방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의 사전교육 등 어떤 예방책이 유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들이 많은데, 청소년범죄 관련 보도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같이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7/11(일)	이재원	[일요와이드]는 7월 4일 지난해 '공정'이란 화두를 던지며 뜨거운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 즉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사가 보안 검색 비정규직 1,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은 물론 일부 비정규직의 고용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인권위는 "피해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할 수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진정을 각하한 일이 있었는데요. 단체 측이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 법상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잠정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원이 인국공 사태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소송의 원인이 됐던 해당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향후 취업난으로 인해 상실감을 갖고 있는 20대 세대를 이해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사회 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취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만큼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1 7/18(일)	안호림	6월 30일 뉴스워치에서는 늦어진 장마의 전망과 기상이변의 원인에 대해서 연합뉴스TV 기상전문기자인 김동혁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잦은 강한 소나기가 열대성 스푼인 것이 아닌가, 장마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 김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해 일찍 끝나는 이상 기상현상을 보였습니다. 출연과 전화연결, 리포트 등으로 해당 이상 기후를 설명하였으나 근본 원인인

		<p>기자는 열대성 스콜, 장마의 특징과 현재 날씨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김동혁 기자는 한반도 상공에 머물렀던 찬 공기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금요일 무렵, 남부, 중부지방의 경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을 전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가량 장마가 늦어진 것은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계속 머물러서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극방파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상 기상현상이 잦아진 탓이라고 하는데요. 장마도 이상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장마는 매년 적지 않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매일 장마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고, 기상전문기자 또는 전문가들과 장마에 대한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알아보는 인터뷰 기사도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에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마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올해의 기상이변은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간의 관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기사의 설명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장마에 대한 보도에서만 짧게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상세한 해설기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p>	<p>지구온난화는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의 관계 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2021 7/25(일)</p>	<p>김홍태</p>	<p>지난 18일 낮 12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을 각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송했다는 데요,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시 위</p>	<p>지역별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방역 당국의 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국내의 경우도 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p>

	<p>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보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자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은 면책 및 감경 기준입니다. 위 보도는 특히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나 그 외 감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보도에서는 서울시 확진 상위 10개구 차이가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우선 단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각 구의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도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 구간의 접종률 대비 확진율을 전하고는 있지만,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변형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지 여부도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p>	<p>관련 내용에 대해선 추후 취재를 통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발송 원고>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7. 0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내년 3월에 있을 20대 대선을 향한 여야 대선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후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고,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이어 사표를 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현재 여야 모두 10명 안팎의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데, 지난달 6월 28일 <뉴스오늘>에서는 대권 도전에 나선 야권 주자들의 행보와 경선 룰을 둘러싼 이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6월 29일 대선 출마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휴일, 기자회견문 마무리 작업에 주력하는 동시에 회견이 열리는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사전 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존 이상록 대변인과 최지현 부대변인 외에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우승봉 전 인천시 대변인을 공보팀장에 임명하며 공보라인을 보강한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한편, 6월 28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당장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이제 관심이 당 밖 주자들의

제1야당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경선 버스' 출발 전인 8월 말까지 입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원장 모두, 당분간은 당 밖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경선 버스 탑승 여부를 가릴 최대 변수는 현재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규칙을 바꾸긴 어렵다는 의견과 당 밖 주자의 입당을 유인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내 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의원은 복당 직후, 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또 다른 당내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100% 일반 국민 모바일 투표로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기 접합된 야권 대선 레이스는 당분간 '게임의 룰'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28일 <뉴스위치>에서는 사흘간의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던 기자는 최소 9명이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같은날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7월 5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깜짝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여권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단일화 발표 현장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담판, 결단, 여론조사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고, 둘의 단일화 논의에 다른 후보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전선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6월 30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7월 1일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영상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이어 야권 후보자들의 행보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6월 29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며칠째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출마의 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윤 전 총장이 그간 측근을 통해 전언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공개 행보를 본격화하며 검증대에 올라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장외주자이자 윤 전 총장의 대안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 전 총장 대선 출마를 앞두고 6월 28일 아침 사의를 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정치 직행 가능성이 높아진 최 원장 행보를 놓고 여당은 "감사원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기대를 드러내며 서로 다른 반응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야권 주자 중, 주목을 받는 인물들이 이렇게 링 밖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이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홍준표 의원도 대권 행보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링 안의 현황도 전했습니다. 이들 링 안의 후보들이 얼마나 존재감을 발휘할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사실상 개방형 플랫폼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대선 경선후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 역시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대권을 향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도 많은 시기이고, 경선이 다 보니 후보자간에 대립이나 갈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의 행보나 이벤트를 단순 전달하거나 후보자들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써서 옮기는 보도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누가 뭘 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등을 나열한 보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일 수 있겠지만, 대선이라는 중대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시청자들에게 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분석, 행보의 의미, 발언의 속뜻 등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를 함께 제공해주려는 노력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 24일 <뉴스리뷰>에서는 쿠광 물류센터 화재 이후 쿠광의 미흡한 안전관리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화재 당시 신고를 했는데도 보안요원이 이를 묵살했다고 증언하면서 쿠광 물류센터의 안전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광 물류센터에서 반쯤 처리와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 21살 최 모

씨는 인터뷰를 통해 고위험 업무에 투입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휴대전화로 반납한 채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도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재가 난 덕평물류센터에선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경보기가 울린 적이 있는데 관리자들이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고 했다"는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화재 당일 연기가 난다고 보안요원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이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쿠광 노조는 반복되는 사고 이면에는 안전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쿠광의 기형적인 업무 구조가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쿠광 측은 화재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노조가 또 거짓 증언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24일 <뉴스20>에서 기자는 이커머스 업체 1위 쿠광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해결하지 못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기업의 윤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근로자들의 신고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안전 문제와 열악한 근로 환경이 드러났고, 같은 날 김범석 쿠광 창업자가 한국 법인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혀 책임 회피 논란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쿠광이츠 새우튀김 갑질 논란, 코로나19 집단감염 피해자 모임과의 비공개 교섭 결렬, 욕일기 관련 상품 판매 이슈까지 이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쿠광의 안일한 대처에 화가 난 소비자들은 탈퇴와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쿠광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로켓배송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쿠광이 ESG 같은 사회적, 윤리적 책무에는 소홀했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전하며, 기자는 뉴욕 증시 상장으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른 쿠광이 후진적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싸늘한 여론을 비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쿠광의 약재를 보면서 고도성장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재하는 안전불감증, 열악한 노동현실, 후진적 기업 문화의 민낯을 본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사건 보도에서 문제의 원인을 쿠광의 구조적 측면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를 한 기업의 문제로만 국한하다 보면, 더 큰 우리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싶은데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노동현장 어디에서라도 누적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는 쿠광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헤쳐야겠지만, 논의를 좀더 확장시켜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현실과 기업 문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고발성 보도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8일 <뉴스메이커>에서는 무면허 10대 청소년들이 도난 차량을 몰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단독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아심한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승용차 한 대를 뒤쫓아가 경찰차로 승용차 진로를 막고 멈춰 세우는 영상을 보여주며 급박했던 사건 현장 모습을 전했습니다. 탑승자는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 다섯 명으로, 기자는 이들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도난차량을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탄 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훔친 것으로, 경찰차가 차를 가로막자 운전자 A군은 차문을 열고 뛰쳐나와 골목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는데, 탑승자 중 10대 여성 세 명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렌터카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린 후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A군 일행이 탄 차량에 탑승했다며 사건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검거 당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군을 포함해 이들 10대 다섯 명을 무면허 운전과 절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도주한 10대 남성 한 명을 추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강력범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청소년 범죄에 경우 모방범죄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보도의 경우 앞의 보도

처럼 범행내용이나 범죄 방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보도들이 많은데, 청소년범죄 관련 보도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같이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21. 07. 1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50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대선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한 소식과 인국공 논란의 법원 판결, 그리고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 여부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일요와이드'는 7월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예비후보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두 번째 '국민면접' 행사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민면접'은 대통령 취업을 준비하는 '대통령 취준생'이 압박 면접을 받는다는 콘셉트로 기획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면접' 현장의 기자와 전화통화로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 모집한 국민면접관 200명과 전문면접관 3명이 등수도 매긴 결과 1등 이낙연, 2등 최문순, 3등은 이광재 후보가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세대별로 고루 분배된 국민 면접관들이 매긴 공감도 점수는 이낙연 후보가 가장 높았고 이광재, 이재명 후보가 뒤를 이었고, 2차 면접은 3명의 전문면접관이 10분간 압박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이었는데,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매섭게 몰아붙이는 질문을 쏟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의 기자는 각 예비후보가 받은 질문과 답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 응시생인 이낙연 후보에 대한 첫 질문이 "조국 전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것이었는데 이 후보는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1번 공약은 기본소득보다는 성장 정책이 되어 한다고 말했고,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만하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국무총리로서 인사 관련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총분치 못했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답했고, 이광재 후보는 친재벌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기업 유보금 1천조 원을 지방대학에 투자하면, 확실한 세제 혜택을 줘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도는 국민면접 현장에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 직접 취재한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을 회계사가 당내 논란 끝에 전문면접관에서 사퇴하고, 김소연 뉴닉 대표도 사의를 표하며 빈자리엔 정수경 국제법률경영대 교수와 천관율 기자가 참여했다고 전했는데요. 면접관 선정 과정과 논란을 분석한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 접속자가 8,000여명으로 적었다고 전했는데, 여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데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이유와 그럼에도 귀를 기울일 민심을 확인해 대선 후보와 관련된 보도를 구성하는데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뉴스1번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비대면 출마 선언을 하고 중산층을 7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소식을 국회 출입기자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커지고 있다면,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면, 중산층 경제를 만들고,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금수저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하고, 일자리와 세제, 복지가 계층이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뉴스1번지'는 민주당 첫 번째 단일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 방문으로 본격 행보에 나선다는 소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움직임 등 대선 예비후보들의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뉴스1번지'는 대선 예비후보 지형을 발빠르게 보도했습니다. 이낙연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과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 윤석열 전 총장의 탈원전 비판 등을 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 생생하게 팩트를 전달했습니다. 7월2일 '뉴스1번지'에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앵커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출마 의지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 그 동안 전국적인 선거를 계속 패하면서 당 자체가 지지부진 했지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 젊은 당 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약속드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일 후보를 뽑으려면 저희들이 당 안에서 경선을 치러서 단일 후보를 뽑으면 제일 좋고 그게 정 안 되면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야권 단일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유 뿐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복지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빈곤층 이런 분들한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그런 국가가 지원을 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게 그게 복지의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생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 등에 대한 속내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일정 시작되면 각 후보들 간 경쟁이 더한층 치열할 텐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후보들이 발표하는 미래 청사진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길 바라며, 후보들 간 경쟁 구도 중심의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일명 경마 저널리즘을 지양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각 후보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 내놓은 정책과 이를 실현시킨 과정 등 검증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와이드]는 7월 4일 지난해 '공정'이란 화두를 던지며 뜨거운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 즉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공사가 보안 검색 비정규직 1,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은 물론 일부 비정규직의 고용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인권위는 "피해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할 수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진정을 각하한 일이 있었는데요. 단체 측이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위상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잠정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원이 인국공 사태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소송의 원인이 됐던 해당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향후 취업난으로 인해 상실감을 갖고 있는 20대 세대를 이해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사회 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7월3일 '뉴스프리즘'은 수술실 CCTV법을 둘러싼 논란을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지난달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서구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을 했다는 내부고발이 들어오는 등 사례가 이어지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

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론조사 결과,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실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정보 불균형 현상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제시로 시작되어, 수술 중 과다출혈로 아들을 잃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5년째 법적 공방 중인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인터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수술실 내 CCTV 의무화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6년여간의 논의 과정을 조목조목 전달했습니다. 2014년,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생일파티를 했던 사건 이후 2015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음으로 발의가 된 뒤 거듭 폐기된 과정을 전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해외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잘못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낮아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 등 상반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고려할 점 등을 자막으로 제시했고, 논의가 시작된 6년전부터 현재까지의 맥락과 환자와 의료계, 정치권의 입장까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달해 사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21. 07. 1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월등히 강해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세인데요. 연합뉴스TV 에서는 7월 8일 뉴스포커스에서는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경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미국이 코로나 독립에 근접했다고 자평하는 것과는 달리 백신 접종률 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 수가 반등하여 불안한 기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병상 부족 등의 사태가 나타나고 인도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신규 감염의 절반을 육박하고 있어 돌파 감염도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능이 델타 변이 유행 후 크게 낮아졌다는 이스라엘 정부 발표를 반박한 것으로,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변이에도 90%에 가까운 효과가 확인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있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에 있어서도 입원과 중증 질환을 막는 데 높은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모든 연구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지난 7월 9일 5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이란에서의 델타 변이 확산세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8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입원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병상과 의료용 산소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도 하루 2만 3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5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보건 당국은 지난 5일부터 11개 도시를 2주간 봉쇄하고 120개 도시의 지역 간 이동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 영국에서의 델타 변이 확산세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특히 11일 런던에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국 당국이 결승전 경기장에 6만명의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당일 술집 영업시간 연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코로나 상황에 대해 상세한 보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특히 교차접종의 안정성, 백신의 효과 등에 대한 보도는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강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기자 리포트와 전문가 인터뷰로 정형화된 느낌이라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장성 높은 기사나 코너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문화예술계 등의 위기 상황을 기자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다단계, 코로나 4단계로 힘들어하는 계층의 사연을 현장 연결하는 등 발

로 뛰는 기사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각국의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사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보도하셔서 현재의 추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른바 자칭 수산업자 사기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징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가짜 수산업자가 검찰, 경찰, 언론, 정치권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는데요. 연합뉴스TV는 6월 28일 뉴스센터12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현직 부장검사를 상대로 경찰이 나섰다고 전합니다.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라고 합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지난 7월 5일 뉴스워치에서는 경찰이 현재까지 입건한 인물은 부장검사로 강동원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4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이들 소환 조사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경찰은 지난 5월 김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12명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아 구체적 혐의를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7월 5일 뉴스큐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잡법에 불과한 수산업자가 100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대답합니다.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서 피해대상을 포섭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동원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손 변호사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 가능성은 박특검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리 관계를 따져 봐야하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박특검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특검팀에 소속되었던 검사와 연결시켜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향후 의혹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자칭 수산업자 사건에 대해 수차례 보도했고, 뉴스큐브를 통해서 7월 1일, 5일, 7일 세 차례에 걸쳐 상세한 분석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보도 기사는 사건을 부분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사건을 주목해 온 사람이 아니면 쉽게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권의 주요인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여야간 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는 7월 5일 뉴스큐브에서 질문에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였을 뿐, 이러한 의혹이나 여야간의 공방에 대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보도방향에 대한 결정은 언론사 고유의 권한이지만, 시청자들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의 뉴스 분석이 양비론적인 내용으로 흐르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무성의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중심의 심층성을 강화하는 보도체널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장마도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라고 하는데요. 6월 26일 [뉴스17]에서는 미국, 러시아에서의 폭염, 한국의 지각장마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미국 서부의 온도가 섭씨 54도를 가리키는 영상을 배경으로, 미국과 유럽, 모스크바 등에서의 폭염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스크바는 120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라고 합니다. 한국 또한 이상 기류의 영향으로 7월에도 장마가 시작하는데 이는 제주에선 39년만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선 고기압이 열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이, 한반도에서는 고기압이 장마복사를 막으면서 장마가 늦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기후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에 기류 정체 현상이 강해져서 기상이변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6월 30일 뉴스위치에서는 늦어진 장마의 전망과 기상이변의 원인에 대해서 연합뉴스TV 기상전문 기자인 김동혁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최근 잦은 강한 소나기가 열대성 스콜인 것이 아닌가, 장마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해 김 기자는 열대성 스콜, 장마의 특징과 현재 날씨를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김동혁 기자는 한반도 상공에 머물렀던 찬 공기의 영향이 약해지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금요일 무렵, 남부, 중부지방의 경우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을 전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가량 장마가 늦어진 것은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계속 머물러서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극방화가 빠른 속도로 녹고있어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이상 기상현상이 잦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마도 이상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장마는 매년 적지 않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예측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매일 장마에 대한 보도를 내보냈고, 기상전문기자 또는 전문가들과 장마에 대한 이모저모를 상세하게 알아보는 인터뷰 기사도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에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마를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올해의 기상이변은 궁극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간의 관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기사의 설명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장마에 대한 보도에서만 짧게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상세한 해설기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1. 07. 2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과 중한 살인죄에 대하여 재판부가 격리 차원의 형을 선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형국이 길어지면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실제 신입사원의 교육이나 전무가 과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여름 휴가의 숙박을 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전했는데요, 지난 16일 오후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보복범죄 등에 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살인피의자, 40대 남성 A씨가 경북 경산까지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만에 붙잡혔는데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를 상대로 숨진 피해자 B씨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추궁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과거 직장 동료였으며, 금전적인 문제가 발단이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B씨가 일하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 흉기로 A씨를 살인한 후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경산으로 이동해 비닐에 싸인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고법 형사1부는 지난 16일,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던 유동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한 선고이유를 전했습니다. 유동수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보복범죄가 잇따르며, 친구 그리고 직장동료의 목숨을 앗은 잇단 오피스텔 살인사건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이 범행 이유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대치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지난달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에서, 성인인 피해자는 발견당시 34kg였는데요, 피의자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면서, 또한 이번 달 발생한 또 다른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돈 문제로 직장동료에게 앙심을 품은 이의 범행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지난 2017년 6,800여건에서 지난해 1만4천여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사법기관의 대치는 미흡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 해 동안 보복범죄 불구속 수사율은 구속수사보다 40% 가까이 많고, 법원 역시 기소된 사건 중 40%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는데요, 선제적 예방을 위한 경찰 인력과 스마트 워치 등 예산도 현재 늘어나는 보호조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형사사법 기능도 와해가 될 수 있다면서,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를 뒤서 예산과 보복범죄에 대한 안전 기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복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스마트 워치 등 신변보호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보복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사법기관 등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방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보호조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상황분석을 정확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한 번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보도처럼 불구속 수사율이 높고 처벌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신변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멘트는 좋아 보입니다. 옛 애인을 살해한 유씨에 대하여는 작년 8월경 신상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경찰은 그의 얼굴을 일부를 가리지 않고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면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살인죄 등 흉악범의 경우 신상공개와 영장청구 여부 및 재판부의 중요한 선고이유 등은 꼼꼼하게 보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보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메타버스를 통한 신입교육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도하였는데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말 중에 '메타버스'란 것이 있는데요, 현실과 가상세계가 뒤섞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회사 바깥에서 일하며 화상으로 연결하는 비대면을 넘어, 이 메타버스를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김지수 기자는 가상공간 '메타버스' 플랫폼에 만들어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캠퍼스에 LG전자 직원 100여명의 아바타가 모였다면서,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자 가상의 공간에, 실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캐릭터를 담은 아바타가 모여,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수료식을 연 거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하고요, "플랫폼에 모여주시면요. 함께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메타버스에 구현한 경기 파주·경북 구미·서울 여의도·마곡 등 국내 4개 사업장에선 신입사원 교육이 한창인데요, 200명의 신입사원들은 사업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화상캠으로 소통하고, 미니 게임 등에 참여했는데요, 사원들간 교류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90%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신입사원도 조별 모임을 메타버스에서 열었고, 공기업 증엔 서울시설공단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노사 간 만남을 통해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아직은 대부분 실험 단계라, 현실의 사무실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공간을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떤 교육내용과 기업 활동 등을 잘 배치할 것인가 참여자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치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다만, 코로나19가 비대면 세상을 앞당기면서 이제 기업 업무마저 가상공간 속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약에서 모임이 힘들어지자 제약없는 가상적 세계에서의 만남이 가능한 메타버스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위 보도는 LG디스플레이나 현대모비스는 신입사원 모임이 메타버스에서 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영역에서, 실제 신입사원 모임 등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 낸 것은 좋았습니다. 즉 메타버스가 단순 사고와 문화의 장을 넘어 현실적인 업무의 장을 열고 있다는 측면 보도는 돋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국내에서 메타버스 펀드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어서, KB자산운용은 업계 최초로 ‘KB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 펀드’를 선보였고, 삼성자산운용도 지난 달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달 서구주식 순매수 1위로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주식이 차지했다는 것도 시청자들이 눈여겨 볼 부분인데요, 이처럼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기엔 위와 같은 보도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으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후속보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여름 휴가를 위해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숙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확진자 상위 10개구에 ‘안전지대’는 없다고 전하며, 서울시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백화점에서, 직장에서,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점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확진자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지난 6일 583명을 기록하며 500명대로 경총 올라간 뒤에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산세가 전방위적이란 점인데요, 서울시에 의뢰해 최근 6일부터 자치구별로 확진자가 증가한 상위 10개 지역을 뽑아 봤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가 최근 백화점발 확진자 영향 등이 더해지면서 가장 많았고 관악, 송파, 서초, 영등포 등의 순이었는데, 자치구별로 확진 규모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치구마다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검사량을 늘리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연령대로는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3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가장 많았으며,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예방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조속히 반전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지금처럼 적극 동참해주셔야 한다면서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검사를 권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최근 백화점을 통한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백화점 32곳

의 운영자와 종사자 12만여 명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낮 12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을 각 숙박업 플랫폼 사업자에게 발송했다는데요,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행정명령과 거리두기 조치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보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자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은 면책 및 감경 기준입니다. 위 보도는 특히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부분이나 그 외 감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보도에서는 서울시 확진 상위 10개구 차이가 없다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우선 단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각 구의 인구대비 확진자 비율도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 구간의 접종률 대비 확진율을 전하고는 있지만,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변형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지 여부도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1년 7월 04일 04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1년 7월 11일 04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p>2021년 7월 18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1년 7월 25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